

김영란법에 위촉된 화훼업계 돕자

김승수 전주시장, 인사철 맞아 관련법 허용범위 내에서 꽃바구니·난 등 화훼류 선물 권장

김승수 전주시장이 최근 정가인사를 맞아 축하 꽃바구니나 난 선물을 관련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주고받을 것을 권장해 눈길을 끈다.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 인품에서 축하 꽃바구니와 난 선물을 사양하거나, 꺼리면서 꽃가게를 비롯한 화훼업계가 매출 감소 등 경영난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사철을 맞아 화훼류의 선물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소비 심리가 위축될 경우 화훼업계가 더욱 어려운 경영현상에 놓일 수 있다.

김 시장은 최근 화훼인연합회와 조찬간담회를 가진 뒤 간부들에게 "정탁 금지법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꽃 선물을 받기는 가능하지 않느냐"면서 "서로 눈치를 보지 말고 승진이나 전보 인사 시 꽃바구니 또는 난 선물로 위촉되어 있는 화훼업계에 힘을 실어 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김 시장의 이 같은 주문은 공직사회 내에서 인사철을 맞아 관련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축하 난 등 화훼류 선물을 주고받아 청탁금지법 때문에 침체된 화훼업계에 활기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시 방역대책 추진 협의 10일 전북도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김일재 행정부지사와 35사단, 대한양계협회 전북도지회, 재난심리지원센터,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을 비롯한 10개 유관기관들이 시 방역대책 추진 협의 및 의견수렴 등 간담회를 갖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직자 등)의 승진 또는 전보 인사 시 동료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연원을 초과하는 난, 꽃바구니 등을 선물하는 것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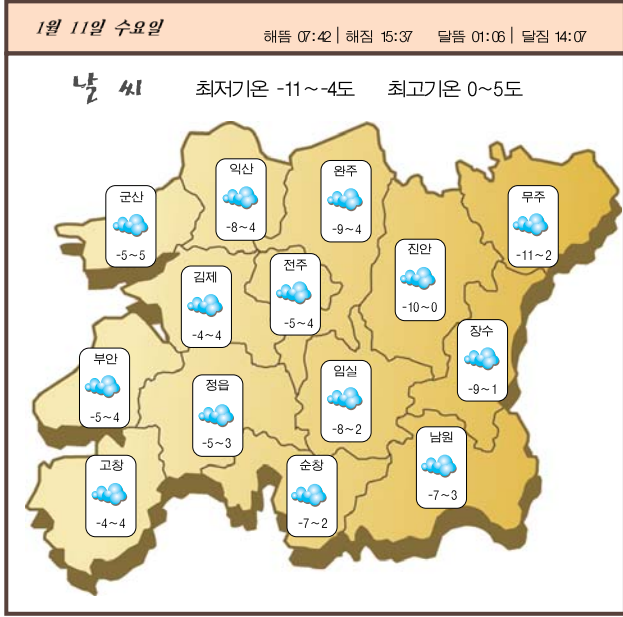
또한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화훼류는 연원을 초과되더라도 가능하며, 직무 관련성이나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연원 이하의 화훼류 선물제공은 허용된다.

이에 김 시장은 꽃 생활화 방안을 마련해 적극 시행하고 유관기관에도 협조 공문을 보내 화단 조성 등 화훼업계 살리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힘써 줄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시장은 "화단 조성 등 꽃 생활화

는 단순히 꽃가게 등 화훼업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한 지역 내 선순환경제구조를 갖추고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있다"면서 생활소비 확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영재 기자



2017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학교배정 공개 추첨

2017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학교배정 공개 추첨이 10일 오후 2시 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도교육청은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합격한 전주, 군산, 익산 지역별 합격자를 대상으로 '선 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학교를 배정하고 있으며 이날 추첨을 통한 정원은 전주 23교 6천9백32명, 군산 6교 1천8백77명, 익산 7교 1천8백4명 등 총 36교에서 1만4백13명이다.

추첨은 컴퓨터 난수 발생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되는데 체육특기자,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 질환자, 다자녀가정 자녀 등을 선 배정했다. 선 배정 대상자 배정이 끝나면 일반배정 대상자를 지망순위에 따라 무작위 추첨 배정하게 되며 1지망 지원자부터 학교별로 선 배정자를 제외한 정원수만큼 배정됐다.

이때 1지망 지원자가 정원수에 미달했을 경우 전원 배정하지만 1지망 지원자가 정원수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난수에 의해 추첨 배정했다.

1지망에서 배정되지 못한 학생은 2지망 배정 대상자로 분류하고 1지망에서 정원수를 채우지 못한 학교는 해당 학생수만큼 2지망 배정 대상자를 대상으로 난수에 의해 배정한다.

학교 배정 결과는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도교육청, 실무중심 방문컨설팅·행정실장 업무공백 지원

학교운영 체제 구축 교육행정 컨설팅 계획 시행

전북도교육청은 실무중심 방문컨설팅과 소규모학교 행정실장 업무공백 지원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학교운영 지원 체제를 구축·운영하는 2017 학교 교육행정 컨설팅 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2014년부터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학교회계분야, 급여 등 행정업무 전반을 지원함으로써 신규공무원 및 전환직 공

무원들의 학교 적응력을 강화하고 기존 공무원들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1:1 현장 밀착형 맞춤형 대면 컨설팅을 실시해오고 있다.

2016년에는 단설유치원부터 특수학교까지 모든 학교급 컨설팅을 실시(1백93교 320일 지원)했으며 직위별 요청도 행정실장과 주무관 등 다양한 직위의 지원을 실시하였다.

또한 행정실장이 출산휴가, 병가 등으로 1개월 이상 업무공백이 발생 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컨설팅 전담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행정 업무표준화를 위해 학교 교육행정 업무매뉴얼 및 초보자용 학교 행정 업무 길라잡이를 정기적으로 수정·보완하고 있다.

컨설팅단은 업무지원 종료 시 학교 현장의 만족도 조사 등 평가를 실시

하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과제를 모색하는 등 현장지원체제를 공고히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북교육청 학교 교육행정 컨설팅단이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실질적인 지원행정의 모델로 자리를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지난해 유초중고 8만9천명 '안전 훈련' 이수

전북도교육청이 생애주기별 안전체험훈련을 진행해 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유초중고등학생 8만9,000명이 전북19안전체험관 등에서 안전체험 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생애주기별 안전체험훈련 대상이 되는 유치원생, 초·중·고, 2학년, 고2학년 학생들 8만9천명이 생명과 직결되는 재난 교통, 응급처치, 수상안전에 이르는 다양한 안전체험프로그램을 체험에 참여하였다.

전북19안전체험관은 재난종합체험동, 위기탈출체험동, 물놀이안전체험장, 어린이안전마을 등 다양한 재난대비체험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남원에 위치한 전북학생교육원은 안전건

강, 도전체험, 공동생활, 자기계발 활동, 부안의 전북학생해양수련원은 집단생활과 수상안전 체험활동, 군산 등 5개 시에 위치한 어린이교통공원 등 생활안전, 재난안전, 물놀이안전 등의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라북도교육청은 전북소방본부와 업무협약도 맺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올해 전북교육연구원에 안전관련 직무연수과정을 개설하고, 각급학교에 응급처치, 가스안전, 교통안전 등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 전북 학생안전 길라잡이 보급, 고창 삼인종합학습장을 리모델링해 안전체험시설로 확충하는 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해은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